

# 저소득 가구 유형별 복지서비스를 통한

## 생활비 절감 효과\*

김 영 주(중앙대학교 교수)

유 병 선(중앙대학교 강사)

###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00년대 이후 들어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제안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저소득층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의 질 등 주거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는 많은 독거가구, 노인가구, 소년·소녀 가장가구 및 기타 법정영세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에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지원대상 등은 사실상 지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박은규, 2004; 서종균 외, 2008).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으로 구성되므로 이들의 생활을 돕는 외부적 지원이 필요하며 영구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복지요구를 반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영구임대주택의 문제점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본적인 주민의 생계문제와 과도한 주거비(임대료와 관리비) 부담 및 생활비의 증가로 지적되고 있다(임재만, 2002; 한국도시연구소, 2001). 실제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과 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이들의 주거수준과 경제수준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입주민들의 전반적인 경제수준(가구총소득)과 주거수준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 지출과 빚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호, 2001).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저소득 가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소득 및 지출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적정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구체적 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활비 부담문제가 두드러지는 저소득 가구의 대표적 유형에 따라 개별 가구의 상황에 따른 소득 및 지출구조의 세부항목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비 절감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복지서비스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가계지출 항목에 근거하여 생활비 지출항목을

\*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07첨단도시개발사업(과제번호:07 도시재생A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세분한 뒤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는 가구별 지출비용과 현금 및 현물형태로 지원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대응시킨 후 이를 통해 절감된 경제적 비용효과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가양동에 소재한 G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사회복지관 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자가 분류한 저소득 가구 유형에 부합되면 심층면접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는 가구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결과,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사례가구 4곳을 소개받아 각 가구를 개별 방문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 일반사항

가구유형	사례	가족구성	주택특성
수급 노인단독가구	1	노부부	서울 등촌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12평형)
수급 장애인(포함)가구	2	모+자녀2명 (장애아동 포함)	서울 가양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14평형)
	3	모+자녀4명 (장애아동 포함)	서울 가양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18평형)
수급 학령기자녀가구	4	부부+자녀2명	서울 등촌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14평형)

### 2. 조사 기간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10년 3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였다. 본 연구를 위한 면접조사 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들로서 최종 선정된 조사대상자들에게는 사전에 전화로 접촉하여 면접조사 일정을 정한 후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조사과정 중의 면접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사전동의 하에 녹취하였으며 주택에 대한 사진촬영을 이용한 관찰조사가 병행되었다.

## III. 저소득 가구의 경제상황 및 복지서비스 수혜실태

### 1. 저소득 가구 유형별 경제실태

영구임대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민이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영주·김영태, 2007). 한국도시연구소에서 2005년도에 수행한 영구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홍인옥 외, 2005) 결과에 따르면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은 72.2만원이며, 이중 수급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50.6만원으로 그 구성비율을 보면 공적이전소득이 63.6%, 나머지 25.7%가 근로소득으로 상당부분이 공적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었다. 한편 가구의 월평균 지출규모를 보면 수급가구는 47.4만원, 비수급가구는 79.5만원(비수급가구 중 차상위가구는 90.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소득 대비 월지출의 비율로 따져볼 경우 수급가구는 월소득의 93.7%를 지출하는 것으로 소득의 대부분이 지출된다고 할 수 있다. 비수급가구는 이보다 다소 낮아 소득의 84.6%(차상위가구는 소득의 86.3%)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유형별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조사한 결과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가구의 경우 106.6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자가구 78.6만원, 모자가구 78.1만원의 순이었다. 한편 노인단독가구는 31.2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홍인옥 외, 2005, p.75).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유형별로 지출항목의 순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인단독가구, 장애인 포함가구,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모두 주거비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지출항목 1순위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4.9%로 다른 가구 유형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주거비 다음으로는 식료품비(15.1%), 보건의료비(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포함가구의 경우에도 노인단독가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지출항목 1순위로 주거비(46.3%), 식료품비(20.3%), 보건의료비(17.0%)의 순이었다.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가계지출 항목 1순위로는 교육비가 3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거비(28.8%), 식료품비(21.6%)의 순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는 무엇보다도 자녀교육과 관련된 지출부담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고려한 생활관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2. 저소득 가구 유형별 복지서비스 수혜실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종교단체들에 의해 제공된다. 이중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대표적인 서비스에는 급식 및 밑반찬 제공, 청소와 세탁, 방문간호 및 간병, 병원동행 및 수속대행, 보장구지원, 방과후 교실과 보육서비스, 후원자 연결,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 등이 있다. 그밖에 동사무소에서는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 식사제공 및 가사지원, 집수리나 도배, 생활상담서비스 등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가, 보건소나 무료병원에서는 무료진료와 건강검진 등이 주로 제공된다.

저소득가구의 수급여부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비수급가구에 비해 수급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모두 1순위 항목으로 식사준비(급식) 및 밑반찬제공, 건강검진과 무료진료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비수급가구는 방문간호 및 간병,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취미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인옥 외, 2005). 동일한 연구에서 저소득 가구의 구성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노인단독가구는 식사준비(급식), 밑반찬제공 서비스, 무료건강검진 및 진료, 가사서비스 등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역시 식사준비(급식) 및 밑반찬제공, 건강검진과 무료진료, 방문간호 및 간병, 병원동행 및 수속대행 등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생활주기상의 요구에 따라 보육서비스나 방과 후 자녀 학습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IV. 저소득 가구 유형별 복지서비스를 통한 생활비절감 사례조사 결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 중에서도 소득과 지출구조 면에서 두드러진 특성과 문제점을 보이는 가구는 수급가구이며 그중에서도 노인단독가구, 장애인 포함가구, 학령기자녀 가구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가지 가구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 분석하였다.

##### 1) 사례 1 : 수급 노인가구

사례1은 서울 등촌동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 12평형에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할아버지, 72세/할머니, 78세)이다. 이들 노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으며 할아버지는 오래 전에 척추수술을 해서 현재 장애 5급, 할머니 역시 양쪽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특히 할머니의 경우 건강이 안 좋아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장애 1, 2급인 경우에만 장애인용 콜택시가 제공됨에 따라 할아버지 혼자서 수발하며 일반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따른다고 호소한다. 당뇨가 있는 할머니를 위해 식사를 잡곡식으로 해야 하므로 식비 역시 많이 드는 편이다. 그래도 매주 목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반찬을 3가지씩 가져다 주는 것이 부식비 절약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한다.

수입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83만원, 노인수당이 1인당 7만원씩 총 14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1인당 장애수당 3만원씩 6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지출의 경우 매달 잡곡을 비롯한 부식비가 약 30만원 정도씩 들어간다. 아파트 관리비는 겨울철 온수와 난방비 38,000원 정도를 포함하여 매달 약 1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다. 임대료 41,340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각각 5천원 정도씩 지출되며, 신문구독료를 15,000원씩 내고 있다. 그밖에 TV수신료 4,400원, 전화(핸드폰)요금 2만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지출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비로 건강상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MRI 등의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검사는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번 갈때마다 최소 1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만원 씩의 지출이 따르므로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호소한다. 교통비 역시 많지는 않아도 매달 몇만원 정도 소비되고 있다. 그나마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일주일에 5일(월~금)간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하여 청소와 식사준비 등 일상적 생활을 지원해주므로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를 종합해볼 때 사례가구 1의 수입총액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030,000원이었다. 또한 각종 지출항목별로 복지서비스 지원금액을 배제한 상태에서 월평균 지출총액은 1,100,12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수혜 중인 복지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뺀 실제 지출총액은 783,130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을 이용하여 소득총액 대비 지출총액 비율은 106.8%로 지출이 소득액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인한 소득총액 대비 실지출총액의 비율은 76.0%로 복지서비스를 통한 이 가구의 비용절감효과는 3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 부정기

적인 지출로서 의료비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표 2> 사례가구 1 : 수급 노인단독가구의 소득 및 지출구조 분석표

항목		금액		
소득	생계급여/주거급여	830,000		
	노인수당	140,000		
	장애수당	60,000		
	<b>소득 총계</b>	<b>1,030,000</b>		
항목		지출액	실지출액	
지출	식료품/음료/주류.담배	주식비	20,000	0
		주식(잡곡비)	300,000	300,000
		부식비	250,000	250,000
	의류/신발	의류,신발	0	0
	주거/수도·광열	임대료	150,000	41,340
		관리비	18,190	18,190
		난방/급탕/전기/가스/수도	53,200	38,200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활동도우미	150,000	0
	보건	병원비	100,000+	100,000+
		수술비 <sup>7)</sup>	유동적	유동적
교통	교통비	0	0	
통신	인터넷/핸드폰/ 집전화/TV수신료	58,730	35,400	
오락문화	문화바우처	0	0	
교육	학교수업료/교재비	0	0	
음식숙박	음식, 숙박	0	0	
기타상품서비스	이미용	0	0	
비소비지출	조세/공적연금 사회보험/부채	0	0	
<b>지출 총계</b>		<b>1,100,120</b>	<b>783,130</b>	

※소득총액 대비 지출총액 비율(A) : 106.8%

※소득총액 대비 실지출총액 비율(B) : 76.0%

※복지서비스를 통한 주거비 및 생활비 절감효과(A-B) : 30.8%

## 2) 사례가구 2 : 수급 장애인(포함) 가구

사례가구 2는 서울 가양동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14평형에 거주하는 어머니(48세)와 자녀1(딸, 16세, 장애아), 자녀2(딸, 12세, 초등학교 6학년)로 구성된 수급 모자가구이다. 장애아인 큰 딸은 2009년 4월부터 간질증세를 보여 24시간 옆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므로 어머니가 전혀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필요할 때에만 아이를 혼자 두고 금방 불일을 보고 돌아오곤 한다. 어머니에 따르면 장애아도 문제지만 둘째 아이 역시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호소한다. 주변에 역할모델이 없으며, 복지관에서 수급자 자녀만 모아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에 보낼 경우 오히려 더 상치만

7) 수술비의 경우 고정적인 지출은 아니지만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 비고정적인 보건의료비 지출부담이 매우 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장애아의 이동과 목욕 등의 편리성을 위해 욕실의 개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주택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의자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도배 정도만 해주는 서비스에 그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 측면의 생활관리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기초생활비, 장애아동수당 등을 포함해 한달에 약1,140,000원 정도이다. 이밖에 비정상 소득으로 복지관에서 후원자를 연결하여 가끔씩 300,000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 사례가구의 경우 다른 사례에 비해 지출규모가 상당히 적게(소득 대비 실지출 총액비율 55.4%)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어머니가 지나치게 세세한 지출구조를 드러내기 꺼려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실제 면접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례가구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매달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생활고의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 3) 사례가구 3 : 수급 장애인(포함) 가구

사례가구 3은 서울 가양동에 소재한 영구임대아파트 18평형에 거주하는 가구로 40대 어머니와 17세(고등학교 2학년) 딸, 16세(고등학교 1학년, 장애아) 딸, 12세(초등학교 6학년) 쌍둥이 딸 2명으로 구성된 수급 모자가구이다. 장애인인 둘째 딸은 일반고등학교의 특수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한다. 원래는 수급가구가 아니었으나 IMF때 사업이 망하면서 가정이 어렵게 되었고, 4년 전에 알콜중독이던 남편과 사별한 이후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무엇보다도 뇌병변을 앓던 장애인 둘째딸의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급자 신청을 하였다. 둘째딸의 다리 수술비로 빌린 돈 1,000만원을 지금까지 매달 55만원씩 갚고 있다고 한다.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았던 당시 1억 가까운 돈을 딸의 수술비를 빌렸으나, 다행히 이후에 빚을 탕감받았으며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아이의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보험적용이 안 되는 보조용구 구입 등은 여전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는 아이들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중 아이들 등교 후 어머니가 11시~2시까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 이 사례가구의 어머니는 틈틈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복지관 직원 및 주변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얻는 생활관리 정보와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받고 있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기초생활급여, 장애아동수당, 근로소득 등을 포함해 한달에 약 160만원 정도이다. 생활은 정부보조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학령기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부수입을 위하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취업을 하고 싶지만 직장을 가질 경우 수급자 이므로 정부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이 역시 여의치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은 주로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왔으나 이마저도 초등학교 6학년 및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없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아이들 학원비로 지출되는 금액도 매달 20만원 가까이 된다. 한편 장애가 있는 둘째 딸의 병원 통원을 위해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매달 차량유지비가 1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밖에 가족들마다 소지한 핸드폰 요금이 매달 4만 여원 정도 나온다. 식비의 경우 매달 쌀값으로 동사무소에서 2만원씩 지급되며 기타 부식비는 재래시장을 이용하여 매달 40~50만원 정도씩 지출된다. 주거비의 경우 관리비로 매달 20만원 정도 지출되며 임대료로 매달 5만 9천원 정도 지출된다.

<표 3> 사례가구 2와 사례가구 3 : 수급 장애인(포함) 가구의 소득 및 지출구조 분석표

항목		금액			
		사례가구 2		사례가구 3	
소득	생계급여	723,050		1,058,260	
	주거급여	187,600		274,560	
	장애아동수당	200,000		200,000	
	병설위문	30,000		30,000	
	부업	40,000		400,000	
	<b>소득 총계</b>	<b>1,140,652</b>		<b>1,562,823</b>	
항목		지출액	실지출액	지출액	실지출액
식료품/음료/주류 담배	주식비	20,000	0	20,000	0
	부식비	100,000	100,000	400,000	400,000
의류/신발	의류,신발	0	0	0	0
주거/수도·광열	임대료	45,000	33,750	59,000	39,000
	관리비	156,960	136,960	54,290	54,290
	난방/담탕/전기 가스/수도	118,180	118,180	193,460	173,460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활동도우미	0	0	1,120,000	0
보건	기저귀	50,000	50,000	0	0
	언어/물리/음약치료	85,000	0	185,000	0
교통	교통비	0	0	200,000	130,000
통신	인터넷/핸드폰 집전화/TV수신료	121,570	121,570	106,400	41,150
오락문화	문화바우처	0	0	0	0
교육	학교수업료/교재비	71,570	71,570	1,164,700	200,000
음식숙박	음식, 숙박	0	0	0	0
기타상품서비스	이미용	0	0	0	0
비소비지출	조세/공적연금 사회보험/부채	180,000	180,000	0	0
<b>지출 총계</b>		<b>768,280</b>	<b>632,030</b>	<b>3,502,850</b>	<b>1,037,900</b>

※소득총액 대비 지출총액 비율(A) : 사례가구 2(67.4%)/ 사례가구 3(224.1%)

※소득총액 대비 실지출총액 비율(B) : 사례가구 2(55.4%)/ 사례가구 3(66.4%)

※복지서비스를 통한 주거비 및 생활비 절감효과(A-B) : 사례가구 2(12.0%)/ 사례가구 3(157.7%)

사례3의 경우 어머니가 상당히 부지런하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지원받음으로써 상당한 생활비 절감을 이루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 대비 지출총액의 비율이 원래는 수입의 2.25배에 달하나 이를 각종 복지서비스와 생활관리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157% 정도 절감하고 있었다.

#### 4) 사례가구 4 : 수급 학령기자녀가구

사례가구 4는 아버지(52세), 어머니(42세), 고등학교 2학년생인 큰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 생 둘째 아들로 구성된 수급 일반 학령기자녀 가구이다.

<표 4> 사례가구 4 : 수급 학령기자녀가구의 소득 및 지출구조 분석표

항목		수입액		
소득	생계급여	94,790		
	주거급여	24,600		
	근로소득	1,200,000		
	<b>소득 총계</b>	<b>1,319,390</b>		
항목		지출액	실지출액	
지출	식료품/음료/주류.담배	주식비	40,000	0
		부식비	500,000	500,000
		급식비	100,000	0
	의류/신발	의류,신발	0	0
	주거/수도·광열	임대료	150,000	49,390
		관리비	19,630	19,630
		난방/급탕/전기/가스/수도	126,000	67,000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활동도우미	0	0
	보건	수술비	유동적	유동적
		의료비	100,000	50,000
	교통	교통비	60,000	60,000
	통신	인터넷/핸드폰 집전화/TV수신료	60,000	30,171
	오락문화	문화바우처	0	0
	교육	학교수업료/교재비	446,700	100,000
음식숙박	음식, 숙박	0	0	
기타상품서비스	이미용	0	0	
비소비지출	조세/공적연금 사회보험/부채 청약저축(예금)	540,000	540,000	
	경조사비	유동적	유동적	
<b>지출 총계</b>		<b>1,596,330</b>	<b>1,416,191</b>	

※소득총액 대비 지출총액 비율(A) : 121.0%

※소득총액 대비 실지출총액 비율(B) : 107.3%

※복지서비스를 통한 주거비 및 생활비 절감효과(A-B) : 13.7%

이 가구는 재작년까지는 차상위계층이었으나, 아버지가 급성당뇨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한시적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대신 어머니가 현재 작은 회사의 경리(사무보조원)로 일하면서 매달 12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다. 그밖에 생계 및 주거급여로 매달 12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아이들이 둘 다 성장기 남아아이들이라서 매달 식비로 약 50만원 정도 지출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한창 공부할 학령기라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많은 데 비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학습지 또는 EBS 교재비 등의 교육비 지출부담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수급자가 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 주거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현재는 매달 5~6만원 정도만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전의 차상위계층 시절과 비교하면 약 10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편인데 정기적인 지출은 아니지만 간혹 급성당뇨로 인해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 갑작스런 병원비 지출이 있어 부담스럽다고 한다.

인터넷 및 핸드폰 요금 등을 비롯한 통신비도 차상위계층 시절과 비교할 때 수급자인 현재는 50% 정도 금액이 지원됨으로써 식구 4명 모두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 가구의 경우 매달 5~6만원 정도가 통신비에서 절감되고 있다고 하였다. TV수신요금에 대해서도 수급자는 복지할인을 해줌으로써 지금은 매달 23,460원 정도만 지출한다고 하였다. 또한 비소비지출로서 청약저축 10만원, 아이들 1인당 만능통장 2만원씩 4만원, 희망플러스 저축 20만원씩 총 34만원을 매달 저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 부정기적인 지출이긴 하지만 다달이 10만원 정도 안팎은 경조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아버지가 건강이 조금 나아지면 대리운전 등으로 부정기적인 소득이 일부 생기기도 하지만 그간의 부채 등을 갚으려면 이 역시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소득과 지출구조가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사례가구 4의 경우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원받는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총액 대비 지출총액을 계산해 본 결과 121.0%로 지출이 소득의 20% 이상을 넘어서는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이중 각종 복지서비스 수혜를 통해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 지출총액과 소득총액과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 비율은 107.3%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여전히 지출이 소득을 넘어서는 구조이긴 해도 복지서비스를 통한 비용절감효과는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가구 역시 아버지의 건강악화와 학령기 자녀들의 교육으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이에 대비한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 VI.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의 대표적인 유형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거비를 비롯한 생활비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사례조사를 통하여 소득과 지출구조를 세부 항목별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에 관한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문헌 조사 결과 저소득 가구 중 가장 대표적으로 생활상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유형은 수급자 노인가구, 수급자 학령기자녀 가구 및 수급자 장애인 가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가구유형을 대표하는 실제 사례가구를 대상으로 월별 생활비 지출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복지서비스를 통한 생활비 절감효과의 규모가 적게는 12% 정도에서 많게는 150% 이상까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특히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령기자녀를 둔 가구들은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녀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자녀의 연령대별로 적합한 교육관련 복지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병원 출입 등 외출시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서비스 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즉 일정 등급 이상의 장애인에 한하여 제한된 교통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다른 정상인가구에 비해 교통비를 비롯한 수고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이를 위한 교통수단의 지원확대와 같은 교통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조사대상 사례가구들 중에는 주변의 이웃이나 복지관과의 활발한 교류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여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사례3).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매뉴얼화하여 배포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상담창구와 전문인력배치를 통하여 가구 유형별 특성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구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주·김영태(200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 및 임대료 체납실태와 의식”, 한국주거학회는 문집, 18(5), 73-84.
- 김정호(2001), 영구임대주택정책의 효과성평가 : 전·후비교법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36(7), 285-296.
- 박은규(2004), 공공임대주택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지자체의 복지프로그램 확대적용 방안,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서종균·최조순·김윤이·임덕영·선종국(2008),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평가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 이병우·김용득·김문근·강희설·박숙경·조운호·이수연(2006),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연구보고서.
- 임재만(2002), “영구임대주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0(1), 1-14.
- 장영희, 박은철,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 연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 한국도시연구소(2001), 공공임대주택 관리전문화방안.
- 홍인옥·남원석·김선미·김윤이·신명호·이호(2005), 영구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 한국도시연구소·건설교통부.

## 저소득 가구 유형별 복지서비스를 통한 생활비 절감 효과\*

박 경 난(연세대학교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교수)

- 본 연구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하는 수급자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 및 수혜복지서비스를 조사 산정하여 생활비절감효과를 분석하고 생활비부담경감의 가능성 타진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필요성 및 조사연구의 어려움
  - 실제적인 지원방안마련을 위해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요구됨
  -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조사 자체가 어려움
  - 수급자에게 소득의 공개는 수급자위치나 수급액의 조정등의 예민한 문제임
  - <표 1>(연구자의 사례중 현금지원이 아닌 현물/경감 지원액으로 수혜비용 계산함)과 같 이 조사대 상의 수혜비용은 하나의 표에 정리하면 누락되었거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예) 모자가정의 급식비, 모자가정2의 임대료, 모자가정1의 광열,통신비,교육비 등
  -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이전에 저소득층가구대상 복지서비스, 특히 가구특성별 지원가능 서비스항목을 조사하고 지원근거 및 방법에 대한 정리가 요구됨

<표 1> 사례가구 복지서비스 및 생활관리서비스 수혜비용 원(%)

	노인가구	모자가정 1	모자가정 2	부부자녀가정
수입항목	생계,주거, 노인,장애	생계,주거,병실위문 장애아동,부업	생계,주거,병실위문 장애아동,부업	생계,주거, 근로소득
주식비	20,000(100.0)	20,000(100.0)	20,000(100.0)	40,000(100.0)
급식비				100,000(100.0)
임대료	108,660(72.5)	11,250(25.0)		100,610(67.1)
관리비	-	20,000(12.7)	20,000(33.9)	-
광열비	15,000(28.2)		20,000(10.3)	59,000(46.8)
통신비	23,330(40.0)		65,250(61.3)	29,829(49.7)
특수교육치료	-	85,000(100.0)	185,000(100.0)	-
가정용품가사서비스		-	1,120,000(100.0)	-
교육비	-	-	964,700(82.8)	346,700(77.6)
교통비	-	-	70,000(35.0)	-
의료비	-	-		50,000(50.0)
계	166,990(15.2)	136,250(17.7)	2,464,950(70.4)	726,139(45.5)
산정되지않은 비용	의류,위생,교통	의류,위생,교통	의류, 위생,	의류,위생,교통

cf. 괄호안의 비율은 총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저소득가구의 생활비경감 필요성 및 방안 동의함
  - 현금일괄지급방식이 아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프로그램확대 필요성
  -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정보 매뉴얼화 및 상담전문인력 배치 필요성
- 과제
  - 가구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지원 및 주거급여
  - 복지서비스개발 및 분배